



광주시체육회(왼쪽)와 전남도체육회가 지난 2일 각각 시무식을 열고 체육행정 내실을 다지고 각종 대회에서 선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체육회 제공)

“전국체전·아시안게임서 지역체육 위상 높아져”

광주·전남체육회 시무식... 굵직한 대회 앞두고 신년 결의 다져

광주시·전남도체육회가 전국체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등 굵직한 대회를 앞두고 신년 결의를 다졌다.

광주시체육회는 2일 광주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김광아 회장직무대행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시체육회는 올해를 ‘광주체육 위상을 높이는 해’로 정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청두 하계 U대회 등을 비롯해 목표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 등 국내·외 대

회에서 광주체육의 경쟁력을 선보이자는 것이다.

‘시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는 기회도시 광주’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추진된다.

혁신행정, 전문체육, 생활체육, 시설관리 등 4대 부문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가시적인 성과내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남도체육회도 같은 날 전남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2023년 시무식 및 청렴선포식을 갖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도체육회는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

전이 역대 최고의 성공대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9개월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기동 회장직무대행은 “올해는 15년 만에 전남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만큼 전남 체육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공개최를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전남체육의 밝은 미래와 전남의 위상제고를 위해 전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남체육 발전에 공헌한 직원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윤상권, 최재경), 대한체육회장상(김남석, 이동규), 전남도지사상(한창희, 박지연) 표창장 전수식이 진행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마스터스 초청장 동명이인 잘못 배달 ‘촌극’

스털링스, 수소문 끝 돌려받아... 동명이인 아마골퍼에 관람권 약속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연말이면 우편으로 배달하는 초청장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한테 갔다가 돌아오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3일(한국시간) 골프채널이 보도했다.

남자 골프 세계랭킹 54위 스콧 스티어링스(미국)는 지난해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한 덕분에 올해 4월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권을 확보했다.

마스터스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들에게는 12월에 우편으로 초청장을 보내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배달되기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긴다.

잔뜩 기대하던 스티어링스는 그러나 새해가 되도록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그는 “매일 다섯 번씩 우편함을 확인했다”면서 “처음에는 아내가 깜짝 놀라게 하려고 숨겨놓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티어링스가 받아야 할 초청장은 다른 스콧 스티어링스에게 배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주인공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 사는 스콧 스티어링스. 이름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다.

평균 90타를 치는 평범한 아마추어 골퍼인 그는 뜻밖에 마스터스 초청장을 받고선 수소문 끝에 선수 스티어링스에게 연락했다.

그는 선수 스티어링스의 인스타그램에 “나도 골프를 치지만 당신과는 수준이 다르다. 이 초청장이 내 것이 아니라면 100% 확실한다. 이 초청장을 대신한데 보내줄 수 있어 기쁘다”는 글을 남겼다.

둘은 최근 전화 통화도 했다.

6일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 출전하느라 하와이에 머무는 스티어링스는 전화 통화에서 또 다른 스티어링스에게 마스터스 관람권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2012년과 2014년 두 번 마스터스에 출전했던 스티어링스는 9년 만에 마스터스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NBA 클리블랜드 주포 미첼 71점 대폭발

미국프로농구(NBA)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주포’ 도너번 미첼(27)이 71점을 폭발하며 구단 역사를 새로 썼다.

클리블랜드는 3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로키 모기지 필드하우스에서 열린 2022-2023 NBA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시카고 불스와 연장전 끝에 145-134로 이겼다.

미첼이 49분 48초를 뛰며 팀 득점의 절반에 가까운 71득점을 올렸고, 8리바운드와 11어시스트를 곁들여 승리에 앞장섰다.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71점을 넣은 건 클리블랜드 구단 최다 득점 기록이다.

올 시즌 유타 재즈를 떠나 클리블랜드 유니폼을 입은 미첼은 앞서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와 카이리 어빙(브루클린)이 이 구단에서 뛴 때

작성한 57점을 넘어 새 기록을 쓰게 됐다.

또 미첼의 71점은 2006년 1월 22일 코비 브라이언트가 LA 레이커스에서 토론토 랩터스를 상대로 81점을 넣은 이후 NBA에서 나온 최다 득점이기도 하다.

역대 NBA에서 한 경기 70점 이상을 넣은 선수는 미첼을 포함해 7명이다.

NBA의 전설적인 센터 윌트 체임벌린이 6번이나 이 기록을 달성했고, 브라이언트, 데이비드 톰프슨, 엘긴 베이러, 데이비드 로빈슨, 데빈 부커(피닉스)가 한 번씩 70점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이 중 70득점-10어시스트 이상으로 더블더블까지 작성한 건 미첼이 유일하다.

2연승을 달린 클리블랜드는 동부 콘퍼런스 4위(24승 14패)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71득점을 기록한 뒤 기뻐하는 미첼. /연합뉴스

한큐에 15점...강동궁 대회 첫 ‘퍼펙트큐’

프로당구 ‘국내 최강’ 강동궁(SK렌터카)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소노캠코양에서 열린 NH농협카드 PBA-LPBA 챔피언십 32강전에서 고준서를 상대로 2세트 퍼펙트큐에 성공하는 등 세트점수 3-0으로 승리했다.

“TS삼푸 퍼펙트큐”상은 세트제 경기에서 대회 처음으로 상대 점수와 이닝과 관계없이 한 큐에 세트의 모든 득점인 15점(LBPA는 11점, 마지막 세트 포함)을 낸 선수에게 돌아간다. 상금은 1000만원이다.

1세트에서 12이닝 만에 15점을 채우며 다소 고전했던 강동궁은 2세트에서 15점을 한 큐에 몰아치며 기선을 제압했다. 선공 고준서가 6득점으로 돌아서자, 강동궁은 빗겨가지기로 처음 득점한 뒤 돌리키,

길게치기 등 어려운 공을 차례로 해결했다.

14득점째는 행운도 따랐다.

뒤돌리키 공격을 시도한 직후 득점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대거씩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지만, 공이 끝까지 움직여 득점에 성공했다.

남은 한 점까지 성공해 퍼펙트큐를 마무리한 강동궁은 3세트도 15-13으로 끝내고 승리했다.

경기 후 강동궁은 “최근 연습실에서 평소엔 한 번도 하지 못한 퍼펙트큐를 두 세 번 성공했다. 꼭 해보고 싶던 기록을 달성해 정말 기쁘다”고 했다.

이어 “최근 자신감이 떨어지고 컨디션도 좋지 않았는데, 공격적인 자세로 경기한 덕분이다. 계속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력을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퍼펙트큐에 성공하고 세리머니하는 강동궁. <PBA 제공>

2년 지연 응씨배 바둑 결승 안 여나 못 여나

주최 측 대면 대국 고집해 신진서-세커 결승전 표류



‘바둑 올림픽’으로 불리는 최고 권위의 세계대회가 2년째 표류하고 있다.

제9회 응씨배 세계 프로바둑선수권대회는 이미 2년 전에 준결승이 끝났지만,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결승전이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응씨배는 2020년 9월 8~11일 제9회 대회 본선 1라운드인 28강전부터 8강까지 온라인으로 열렸다.

2021년 1월 10~11일에는 역시 온라인으로 준결승까지 마쳤다.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8강에 오른 신진서는 준결승에서 중국의 자오천위 8단을 2-0으로 봉쇄하고 가볍게 결승까지 진출했다.

신진서의 결승 상대는 2000년생 동갑내기인 세커 9단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이 대회를 주최하는 양창치바둑기금회가 결승 3번기는 ‘대면 대국’으로 치르겠다고 선언한 뒤 일정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모든 세계바둑대회는 온

라인으로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양창치 기금회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승만큼은 신진서와 세커가 바둑판을 놓고 맞붙는 장면을 연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결승전 일정이 이미 2년이나 미뤄졌다는 것이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바둑 팬들은 물론 결승전에 오른 대국 당사자들마저 기다리다 지칠만한 상태가 됐다.

이에 대해 양창치 한국기원 사무총장은 “지나해부터 여러 차례 주최 측에 문의했지만, 결승은 ‘대면 대국’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들었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아바타: 물의 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2관	아바타: 물의 길
3관	아바타: 물의 길, 3000년의 기다림
4관	영웅
5관	스위치
6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9관	아바타: 물의 길,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7관 세네카를	스위치, 젠틀맨
8관 세네카를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더 퍼스트 슬램덩크, 젠틀맨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3 신년음악회

GWANGJU SYMPHONY ORCHESTRA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70회 정기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일시 : 2023-01-17(화)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